



무념·무특의 안치로 시대는 온다!

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 통합 암(癌) 치료 연구소 ● 토모테라피, 하이프나이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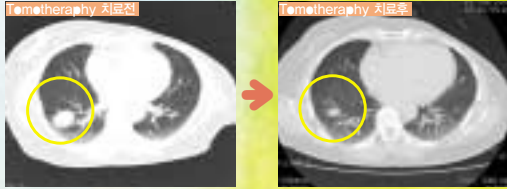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암 환자 수는 약 1백만여명에 이르며, 매년 12만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, 그중 절반이 넘는 6만5천명이 사망합니다. 암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으나, 의학 및 제약 기술의 발달로 최첨단 수술법과 유전자치료, 신개념 항암제, 암 세포 표적 치료 등 새로운 치료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

일단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, 항암제, 방사선 치료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환자의 나이(체력)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 암(癌)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에 비해 점점 더 커지는 정신적, 육체적 고통 그리고 암 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이 있을 것입니다.

이러한 여러가지 면에서 살펴볼 때,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은 타 병원들과는 다른 암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

우선 암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진료적 소견을 종합하여 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병원과 다를 바 없으나, 암 환자 가족들과 의료진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암 치료에 대한 선택과 이해를 돕고 있고 본격적인 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짧은 입원기간을 통한 집중치료와 외래 진료실에서의 항암요법을 통하여 암 환자를 관리하는 서구형 암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폐암 ::



Tomotherapy 치료 전 ::

동그라미로 표시된 노란 부분이 암 덩어리입니다.

Tomotherapy 치료 후 ::

치료 전에는 보였던 종양덩어리가 토모테라피 치료 후 과사되었습니다.

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에서는 2005년 11월 국내 최초로 토모테라피 하이아트(Tomotherapy Hi-Art)라는 초 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를 도입하여 가동한데 이어 2006년 8월에는 미래형 첨단 초음파 암 치료기인 하이프나이프(HIFU-Knife)를 도입, 가동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무혈·무통의 암 치료기를 갖춘 병원으로서의 면모 C. C. I : Comprehensive Cancer Institute // 통합 암 치료 연구소를 갖추고 암 으로 고통 받는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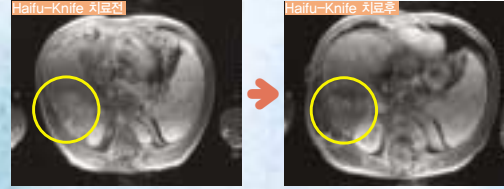
토모테라피와 함께 무혈·무통 암 치료세대를 열어가고 있는 하이프나이프(HIFU-Knife)는 고강도의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시켜(볼록렌즈 원리) 순식간에 섭씨 65~100도 사이의 열을 발생시켜 **암 세포를 죽이며, 정상조직의 손상 없이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과사시키는 암 치료 기기**입니다.

하이프나이프센터 소장 박영섭 교수와 하이프나이프센터 실장 김기준 교수는 “하이프나이프는 인체 외부에서 초음파 조사로만 치료하기 때문에 신체를 절개하지 않아 상처나 출혈, 2차 감염 등의 우려가 없고 환자의 건강한 장기 및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치료법이다”라고 소개 하였고, “유방암, 골종양 및 근육종양, 간암, 췌장암, 신장암 등 신체 여러부위의 악성 고형종양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”라고 강조합니다.

하이프나이프의 특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----- 초음파로 절개된 조직부위에는 암 세포가 전이되지 않으며, 활성을 잃어버린 암 세포는 체내에서 분해, 흡수되는 진행과정에서 항암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.
- 2-----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통한 치료 영상과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3----- 암(종양)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단 한번(one-time)의 치료로 암(종양)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.
- 4----- 인체에 무해하므로 반복치료기능이 가능하여 Green Treatment라고 불리웁니다.

간암 ::



Haifu-Knife 치료 전 ::

동그라미로 표시된 노란 부분이 암 덩어리입니다.

Haifu-Knife 치료 후 ::

치료 전에는 보였던 종양덩어리가 하이프나이프 치료 후 과사되었습니다.

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은 초정밀 표적치료를 할 수 있는 방사선 암 치료기인 토모테라피(TomoTherapy)와 초음파로 암 조직을 과사 시키는 하이프나이프(HIFU-Knife)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갖추고 선진 스타일의 통합적인 암 치료와 무혈·무통의 암 치료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.